

PVC 의료기구 DEHP 유해성 논란

AMA, FDA에 DEHP 해결방안 평가 의뢰 ... 어린이 위해 가능성

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은 미국 FDA에 DEHP(Di-2-Ethylhexyl-Phthalate)가 함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평가를 의뢰했다.

FDA는 최근 PVC로 만든 일부 의료기구들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DEHP를 함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DEHP는 환자에게 유동액, 약물, 혈액, 산소, 영양분을 투입하는데 사용되는 봉지나 튜브 등의 PVC 의료기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이다.

의료기기에 Phthalate 가소제의 사용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Health Care Without Harm은 AMA가 DEHP에 대한 FDA의 평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FDA는 PVC 기기에서 유출되는 DEHP가 특히 유아, 어린이, 특정한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이 여러 가지 PVC 의료기구에 함유된 DEHP에 과다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MA는 FDA에게 DEHP가 함유된 PVC 플라스틱의 대체물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FDA를 도와 의료단체와 병원에 DEHP가 함유된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 평가에 관해 설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학산업계는 DEHP 유도형 의료기기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ealth Care Without Harm은 1999년 6월 미숙아와 신생아 환자에 사용되는 일부 PVC 의료기기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FDA에 제출했으나, FDA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젖병, 고무 젖꼭지, 유아용 장난감 등 아기들이 입으로 빠는 용품들에 DEHP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EU에서도 아기들이 빠는 연질 PVC 장난감이 금지된 상태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2/ 20 >